

(4) 중국의 고려인삼에 대한 인식

역사적으로 고려인삼은 우리나라의 특산물로 중국 사신이나 일본의 통신사로 가는 물품 목록에 빠지지 않았던 귀중품이었다. 2014년 인삼거래가 많고 소비자의 구매가 빈번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3개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는 우리의 기대치와 멀었다. 오늘날 중국인들의 고려인삼에 대한 인식도나 선호도면에서 서양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25는 중국시장에서 인삼 품목별 선호도와 선물용 인삼구매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선호도와 구매빈도 모두 서양삼이 고려삼보다 앞서고 있었다. 인삼선호도에서 중국삼과 고려삼은 별 차이가 없고 선물구매의 빈도에서는 서양삼(40%)이 고려삼(17%)의 두 배가 넘고 있다. 선물용은 서양삼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산삼 18%, 고려삼이 16.66%로 나타났다. 선물용 구매가 많은 대도시 응답자들은 고려삼을 본인 복용보다는 선물용으로 더 많이 구매하고 있었다. 심층면접에서는 서양삼은 가격이 저렴하고 부작용이 없고, 예방기능이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한국산 인삼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 부족과 비싼 가격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유통업체 면담조사에서는 한국인삼에 대해 들어 보거나 접해본 적이 없고,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유사품이나 모조품이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인식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한국인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났다. 승열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인삼에 대한 구매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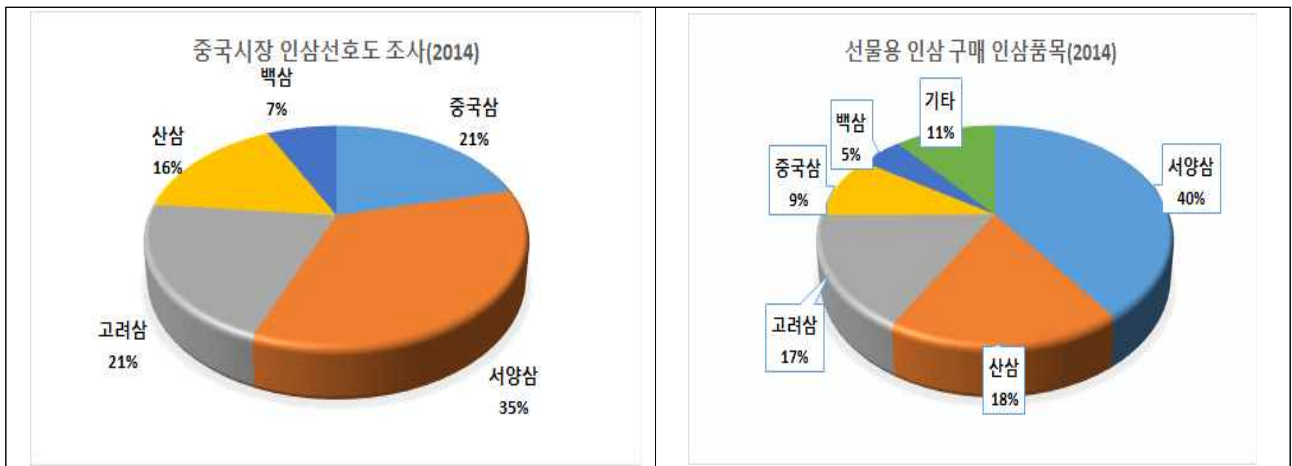


그림 25. 중국시장의 품목별 인삼선호도와 선물용 인삼구매 빈도수

자료: 북경 aT 센터

화기삼의 소비촉진을 위한 근거 없는 낭설의 홍보가 소비지역 전체에서 고려인삼의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려인삼이 체열을 상승시키는 반면 화기삼은 체열을 강하시킨다는 전략적 홍보에 밀려 화기삼은 연중 복용하는데 비해 고려인삼은 주로 겨울철에만 복용하게 만들었다. 화기삼의 약성은 한냉성으로 음(陰)에 해당되고, 고려인삼의 약성은 온성으로 양(陽)에 해당되므로 홍콩 등 동남아지역에 사는 사람은 혈압과 열을 내리는 화기삼이 좋다는 것이다. 고려인삼은 10월경부터 다음 해 구정을 전후로 소비가 최대에 달하는 성수기를 이루고, 여름철은 비수기이런 것이다. 혈압이 있는 사람은 고려인삼이 맞지 않고 북미삼은 누구나 다 복용할 수 있고 별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